

# 청소년 '불교 공부마당' 태부족

서울 사천왕사 선재학생법회 양산해(참일종 1학년)법우는 지난 2월 꽃누리아린이회를 졸업하자마자 선재학생법회에 입학했다.

국민학교 2학년때부터 언니와 함께 법회에 참석해온 선재는 "어린이법회보다 분위기도 엄숙하고 스님의 설법도 어려워졌어요"라고 말했다.

선재의 말처럼 각 사찰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학생법회의 대부분이 청소년기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성인 법회의 모방 또는 그 연장선 상에 있는 실정이다.

전무 상태다.

청소년기는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다. 찬불가를 비롯한 청소년대상 법회 요건과 프로그램도 거의 연구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스님들의 법문또한 이성 문제 학업문제 등 청소년의 현실적 고민들에 대한 것보다는 교리설법에 그치고 있어 X세대 불리우는 요즘 청소년들을 사찰안으로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안장사의 이성훈 강사는 "제



◇ 체육대회를 통한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만남의 자리도 중요한 포교의 한 방법이다.

## 사찰학생회 자체프로 없고 성인법회 모방

### 관심·재정지원 절실... 중등부·고등부 이원화도 필요

도심포교당의 증설로 사찰의 어린이 법회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등학생법회는 제자리걸음을 계속하며 정체돼 있는 상태에 있다. 여러 사찰에서 졸업법회, 입학법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활동은 거의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법회보다 수적으로 열세한 중·고등부법회는 사찰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대부분 중등부와 고등부를 함께 모아 법회를 보고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에 대한 포교는 장기적인 투자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찰과 종단의 관심과 지원은 거의

대외된 프로그램이나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청소년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계종 포교원내 어린이 청소년 포교전담기관의 설치도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체육대회 등 인간의 자라도록 어린이·청소년·청년들에게 자연스런 소속감과 유대감을 심어주는 것도 지속적인 실행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 포교의 현장에서 만난 불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이은자 기자)

## '학생회 조직관리' '지도자 양성' 제안

### 전국 교법사단 '청소년 교화방안 세미나' 우인보·박영동법사 발표

조계종 포교국내에 청소년 분과를 제도화하고 전국 사찰 불교학생회와 학교불교학생회 연합회 결성, 조직 관리를 법제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지난 8일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열린 전국교법사단 창단 4주년 기념 불교 청소년

교화방안 세미나에서 동대부속중학교 우인보법사는 '불교학생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우법사는 이와함께 효율적인 불교학생회 운영을 위한 통일된 불교학생회 운영지침서 발간등을 발전을 위한 중

요 과제라고 밝혔다.

중단차원의 조직관리와 지원을 바탕으로 불교학생회를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전문화된 포교적 성격의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우법사는 불교학생회의 자치적인 능력 배양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동대부속고등학교 박영동법사는 '불교청소년 지도자 육성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년회 이상의 정기적 연수 실시, 단계별 교육유수 방안등을 발표했다.

또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와 교구본사간의 상호 협조가 필요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자 자격 연수에 대량한 사람이 참여토록 유도 홍보할 것등을 제안했다.

### 만화 법구경

\* 어리석음의 장 \*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인수처럼 행동한다

이향원

벌써 여름 날씨가 갈래  
요즘 날씨가 이상해  
여보 뒷차가 라이프를  
또 성질 급한 사람 만났군  
지금 제헌속도보다 조금 빠른데도 제축이야  
아니! 저사람이  
곰팡이가끼리 집어 있으면 왜 나와 돌아다니  
아이고 저렇게나 기속을...  
저러다 사고라도 내면...  
제헌 속도보다 50km나 위반 했습니 다 면허증 제시 해 주십시오  
기어코 걸렸네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인수처럼 행동한다 고등스런 결기를 불러들인 몹쓸 행동을 하면서  
원한 길에 속도 좀 내면 이때서 제수없으려니까 나 참!  
오이- 신경질 나  
에이! 밤아라 밤아  
귀야 앞에 또  
왜 이렇게 걸리거리는 것이 많아  
에이! 귀찮다  
좀 빨리빨리 다니라 쌍!  
아니! 커브길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이! 트러  
스스로 저지른 뒤에야 뉘우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과보를 받는다면 내가 미쳤지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  
스스로 행동한 뒤에도 뉘우치지 않고 즐거워 웃으면서 그 보상을 받는다면 이런 행동은 잘한 것이다  
만일을 생각해서 차간 거리도 확실히 지켜야 하지  
알차도 차분히 준비 운행 하세요  
모두들 저렇게 안전 운전하면 차 타는것도 즐거울 텐데...  
그러게 말예요

사람들의 감정을 대표하는 말로 회로에라하면 말이 없다. 기쁨과 노여움 그리고 슬픔과 즐거움을 이르는 감정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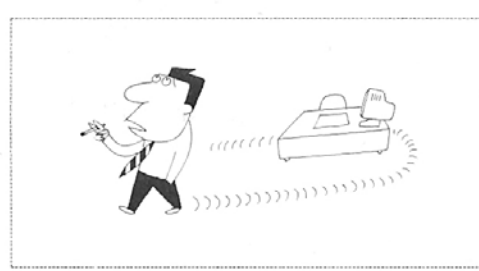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라거나 "아니면" "무슨

바로 인사가 된다. 한 부인은 왜내진료실에 들어온지 10분이 지나도록 말이 없다. 어디가 불편하여 왔느냐고 문진을 해도 도무지 대답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내어쉴새 없이 있다. 표정으로 보아 이세상을 살기조차 싫은 표정을 짓고 있다. 슬픈 표정이 역력하다.

어떤 중년 신사 한분은 의

문에 말이 없고 뒤의 환자는 기쁨 때문에 말이 많다. 장소의 자신의 말을 기준으로 말이 적고 많음에 따라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정신의학적으로 대표되어지는 환자의 정서는 극단적인 쾌락정서와 우울정서가 문제가 된다. 지나치게 기쁘거나 슬프다면 정신적으로나 신체



## 집착버리면 황홀·우울등 극단적 감정 해소

래진료실을 찾아들이기 무섭게 자신의 감정을 들뜬채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 놓는다. 치료자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거나 말거나 자신의 느낌을 무시 하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경우는 물어보나 마나 자신의 기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말이 많아진 것이다.

앞서 말한 환자는 슬플 때

적으로 증상을 일으킬수 있다 는 뜻이 된다. 자신이 경험한 극단적인 정서를 자신의 신체적인 기능이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병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정서의 극단은 기쁜 것이건 슬픈 것이건 매 마찬가지로. 쾌락정서에는 정서의 기본 좋은 정도에 따라서 다행증, 의

기양양, 고양, 황홀감등의 용어로 표현하는데 쾌락정서의 극단은 황홀감이라고 할수가 있다.

이 황홀감은 황홀한 느낌은 물론 신비로운 힘을 느끼며 거대한 우주의 힘을 가진 느낌이다. 우울감의 극단은 단연 슬픈 기분인데 이 정서는 정신과 환자들에게서 가장 많

이 볼수 있는 정서이다.

오지 않는 것을 분노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집착하여 매어달리면 슬픔이 깃든다. 정서의 극단은 신체적인 증상을 일으키고 신체적인 증상의 지속된 상태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병이라고 부른다.

지나가 버린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닦는다면 적어도 정신과적 질병을 앓지 않을 것이다.

### 이런 후 건강칼럼

<22> 정서불안

언짢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상대방에게 인사를 할때가 있다. 이때때 우리들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얼굴 표정등을 살펴 그로 인한 자신의 느낌을 담아 보내는 메시지가

##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쉬운 불교책

읽기 쉽습니다. 배우고 행하기 쉽습니다.  
일타 큰스님의 가르침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윤화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죽음 뒤의 세상.....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인생.....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저절로 얻게 된다.

I. 큰스님 주변 이야기  
II.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III.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 윤회담  
IV.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V. 부처님도 승용한 전쟁업보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신국판 / 242면 / 값 4,5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 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조심>을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읽은 이 책을 펼쳐들면 누구나 알기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작하는 마음》과 함께 진리를 향한 첫걸음을 옮겨 보자. 자유롭고 깨어 있는 나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신국판 / 342면 / 값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후회없는 구도자의 삶으로 이끄는 열가지 보배경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 큰스님께서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은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불교신행의 나침반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바로 이 속에 복된 삶과 성불의 비결이 있다.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환희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잡이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이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 법공양문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

72년 초판 발행 이후 끊임없이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수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져 왔던 불자가 귀하던 시절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렵사리 구해다 놓고 두고두고 읽었던 책. 이제 그 책을 효림에서 새롭게 증보 발간하여 불자들에게 앞에 선보입니다.

시원시원한 편집, 읽기 쉬운 가로짜기, 한글 번역문과 함께 실린 원문으로 초심자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하였습니다. 발심·수행·구경(究竟)의 길을 '법공양문'과 함께 여행하며 참다운 법공양의 기쁨을 느껴 보십시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독심요리 \* 전화:(02)587~6612·6613 팩스:(02)586~9078